

신규참여업자 유입보다 기존업자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채 희 식
본회 제주지부장

제 15대 김대중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영광과 시련을 동시에 안고 출범하면서 취임사를 통하여 국민에 의한 정부를 강조하고 농업을 중시하여 농가 부채경감, 농축산물 가격보장, 농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력한 정책추진을 천명한 바 새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 양계인들도 IMF체제 극복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채란업은 십년전만 해도 대부분 영세농가가 대부분이었으나 UR협상이 표면화 되면서 국제경쟁력 제고로 정책자금 지원되면서 규모나 시설이 커지고 신규업자가 생겨나 양계산물과잉생산에 의한 업계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IMF체제 돌입 이후 환율 상승에 의한 사료가 및 유류가 생산시설 자재 인상 등은 양계농가의 생업의욕 상실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농림부 장관에게 바라건대 영세업자의 시설 현대화와 기존 양계인의 경영합리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신규참여업자를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여 기존업자에게 희망과 의욕을 북돋아 주는 것이 IMF시대 극복과 농가 복리증진의 길이라 생각된다. 최근 지원되고 있는 긴급자금이 실제로 필요한 양축가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원된 자금이 내실이 아닌 생산량만 늘리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어느때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바라건대 법인체인 대한양계협회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생산업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제경쟁력 재고정책 수립에 노력하여 주시고 기존업자의 생산성 향상에 다 함께 노력하여 국제 선진 양계농가와 더불어 앞서가는 농가가 될 수 있도록 농업을 귀히 여기는 장관이 되었으면 한다. **양계**